

## 내가 느낀 한국

重政 優 (盈進高等学校)

김태구.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할아버지의 성함이다. 할아버지는 작년 11 월 19 일, 90 세의 나이로 눈을 감으셨다. 나는 할아버지와 몇 번 만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나의 인생을 바꿔주신, 태양과도 같은 분이셨다.

나는 작년 봄부터 평화와 인권에 대해 연구하고 봉사하는 동아리에 소속되어있는데, 내가 처음 방문했던 곳은 나가시마애생원이었다. 그곳에서 처음 할아버지와 만났다.

할아버지는 1926 년, 대한민국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나, 12 살때 일본으로 건너오셨다. 전쟁 후, 오사카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에 한센병이 발병 되어 강제 격리를 당해, 돌아가실 때까지 약 60 년 간 거의 나가시마애생원에서만 지내셨다고 한다.

“가장 힘드셨을 때는 언제인가요?” 라고 여쭙어 보니, ‘오사카에 남아있는 아내가 죽었을 때도 집으로 보내주지 않았을 때’ 라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는 이미 많이 늙으셨고, 병의 후유증으로 몸도 불편하셨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할아버지는 굳게 살아오셨다.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살자’ 라고 결심하게 되었다.

나는 필리핀 혼혈 이라는 이유로, ‘피부가 까맣다’ 거나 ‘외국인’ 이라고 놀림을 당했던 적이 있어서, 진짜 나의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만나고 그분의 삶의 방식과 인간적인 상냥함을 보고 나서, 나 역시 ‘있는 그대로 살아가자’ 고 결심하게 되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일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한마디였다.

재일교포 라는 것과, 한센병 환자. 이 두 가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셨던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가 내가 쓴 한글을 보시고 “호오, 너는 한국인인가” 라며 착각해 주신 것은 나의 자랑거리이다.

할아버지의 유골은 나가시마애생원에 있는 납골당과, 조국인 한국 합천에 나뉘어져 묻혀졌다. 생전에 이런 말을 남기셨기 때문이다.

“고생을 함께 나눈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다. 나가시마애생원에 살았던 기록도 남기고 싶다. 하지만 역시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할아버지가 희망을 전해주신 것처럼, 나도 장래에 한국, 그리고 아시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할아버지는 태양으로서 나에게 그런 희망과 용기를 준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 내가 느낀 한국

大石 二千香 (長崎県立対馬高等学校)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나는 낯선 여행을 떠났다. 말이 통하지 않는, 본 적도 없는 세계에 혼자 있다. 사람들이 주고 받는 말을 나만 모른다. 도움조차 요청 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두려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가? 아니, 없었다. 아, 맞다. 문득 생각났다.

나는 예전에 이 꿈과 매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4년 전 여름, 나는 처음으로 여권을 들고 한국 여행을 떠났다. 내가 활동하고 있던 축구 교류회를 통해 홈스테이를 할 기회가 생겼던 것이다. 혼자서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에게서는 꿈속에서 본 것처럼 모르는 거리를 헤매는 여행이었다. 일본인은 한국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한국에 대한 생각은 십인십색이지만 역시 정치 문제의 영향이 클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 때에는 한일 관계가 나쁘다는 인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어도 못하는 나를 한국인들이 받아들여 줄까라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한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교류를 끝냈을 때는 단순히 일본과 한국은 사이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 이유는 한국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한국이니 일본이니 하는 벽 따위는 없었다. 호스트 패밀리도 나의 서투른 한국어에 열심히 대답을 해 주었다. 어느새 불안이 사라졌다. 덕분에 무엇 하나 불편함이 없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 인사가 나에게 돌아왔다. 나를 위한 사람들의 배려가 있었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에는 국적은 관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동시에 내가 한국어를 잘 할 수 있었다면 더 깊은 교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느꼈다.

그때 그 교류에서 벌써 4년이 지났다. 그때를 계기로 나는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어쩌면 그때의 그 거리에서, 홈스테이 가족들에게서 받았던 은혜를 갚고 싶어서 일지도 모른다.

만약 아까 그 꿈의 뒷이야기가 있다면 나는 보고 싶다. 이제는 무섭지 않으니까. 분명 그것은 따뜻한 한국의 거리,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이 나오는 꿈일 것이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세계는 없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 된다. 어느 나라에도 좋은 사람, 좋은 거리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면 마음은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이 마음을 앞으로도 간직한 채,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을 배우고 싶다.

## 내가 느낀 한국

堀江 風花 (智辯学園和歌山高等学校)

"힘들 때는 언제나 전화 하거나 문자를 보내도 돼."

힘들 때나 지칠 때는 이 편지를 되풀이해서 읽었다. 처음이었다.

그렇게 나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말한 것도, 그토록 연약한 내 자신을 내보여 받아들여진 곳도.

공부, 장래, 인간 관계 등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던 나는 작년 여름 미국에 2개월간 유학했다.

첫날은 비행기가 지연됐고 이틀째는 사고를 당하는 불운에 허덕였던 나에게, 신은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주었다.

유학 생활 5 일째, 홈스테이하던 집의 룸메이트랑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다.

내가 유학한 지역에는 한국 사람이 많이 있었다.

룸메이트도 그 친구도 모두 한국의 언니였다.

덕분에 나는 미국에 유학하면서 한국을 만끽하게 되었는데, "매워요!"라며 밥을 먹은 것도, "뱃데리가 나갔다"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발음도 뜻도 같은 말에 웃은 것도 좋은 추억이었다.

"곤니치와"

갑자기 낯익은 일본어가 들려서 돌아보았다. 그게 저와 편지의 발신인과의 만남이었다.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국의 오빠였다. 많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일본어를 알고 있었다. 한국어를 모르는 나에게 계속 영어나 일어로 말해 주는 자상함이 기뻐다.

2 달 동안 그 사람과 만난 것은 다섯 번 정도다. 그래도 우리는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일본 친구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이 그 사람에게는 서슴없이 말할 수 있었다. "멋진 모습만 보여야지" 그런 허세도 그 사람 앞에서는 부리지 않았다. 분명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와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년 전에도 나는 한국어로 작문을 썼다. 그로부터 일년 우리들 사이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지도에 그어진 국경처럼 "일본인" "한국인"이라며 인간을 구별하고, 그것 만으로 선악을 결정하려고 한다. 한일 문제나 한일 과거사라던가, 나는 솔직히 아무래도 좋다. 수학 여행으로 한국에 갔을 때보다 한국이 좋아졌다.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에서는 "일본인" "한국인"이라는 구별은 무의미했다. 앞으로 비록 한일 국교가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해요"라고 가슴을 펴고 말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의 상냥함을 나는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대용. 그것이 편지의 발신인의 이름이다. 그의 편지에는 이런 말도 씌어 있었다.

"다시 만나 뵙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를 만나는 것은 언제인가, 도대체 언젠가 만날 수는 있는 건지 난 모르겠다. 그래도 좌절할 것 같은 때, 힘들 때는 그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는다.

그의 말은 항상 나를 강하게 하니까.

## 내가 처음 들은 말

三木 蓮 (関東国際高等学校)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그 나라를 방문해서 문화나 생활을 체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봄방학 때 학교 프로그램으로 간 단기유학에서 여러 곳의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를 돌아다니고 있으면 달려와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거나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는 등 따뜻하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어느 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친해진 친구와 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옆 반에서 여자아이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저하고 친해진 친구가 그 아이한테 "너네 반에도 일본 학생 왔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옆에 있는 것을 모르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던 일본 학생을 보면서 "왔는데, 난 일본 사람 안 좋아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 아이에게 알려주듯 말하니까 그 아이는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교실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저하고 같이 있던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의 말을 못 알아들은 척하려고 했지만, 한국 친구들이 잘못된 게 없는데 사과를 해서 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까지 한국에서 직접 일본 사람을 안 좋아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것보다 그 날 처음 만난 저를 많이 걱정해줬던 친구들의 표정과 사과를 하는 따뜻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말을 들은 후의 친구들의 슬픈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유학에서 많은 고등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저희 방문을 상상 이상으로 환영해줬을 때의 감동,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었을 때의 기쁨, 일본 사람을 안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당황스러움 등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의 저였다면 부정적인 감정 표현에 동요했을 겁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세계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을 싫어한다고 한 그 아이도 제가 있는 것을 알고 사과를 하고 나갔으니까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는 저희들의 방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일본사람을 안 좋아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100% 공감할 수는 없어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로 다른 이름과 서로 다른 생각

社本 理江 (東京都立大山高等学校)

지구상에 약 200 여 국가가 존재하고, 각 나라마다 각기 문화와 사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의 문화와 사상을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일본사람, 엄마는 한국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좋아합니까? 저는 전에는 저의 이름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척 좋아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거기에는 엄마의 영향이 큼니다. 우리엄마는 여름방학 때만 되면 단기아르바이트를 찾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엄마는 구인정보를 있는 데로 펼쳐놓고 전화하기에 바쁩니다. 연락하는 곳마다 대부분 이름을 듣는 순간 일본이름이 아니라서 면접근처에도 못 가보고 거절한다고 합니다. 우리엄마는 일본에서 20 년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본어는 어떨 때 나보다 더 잘한답니다. 그런 능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한 달의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안타까워서 「국적을 일본으로 바꾸고 아빠의성을 따르면 어때요?」라고 말을 했을 때 엄마는 「그건 그렇게 간단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몸은 일본에 있지만 마음을 정신세계를 한국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나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일까? 나의 짧은 지식과 소견으로는 이렇습니다. 한국에는 유교의 사상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조상님들을 존경하고, 정중히 모시는 정신이 있어서, 결혼 후에도 부부는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세계에는 결혼함과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부부라는 의식이 높아지지만, 단점으로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성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좋아합니다. 엄마와 십 몇 년을 살았어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서 한국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여서 일본과의 다른 문화지만 서로 존중하며 우리 집의 두 문화를 잘 융화 할 줄 아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은 어른들을 존경할줄 알고,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았기에 나 역시 그런 사상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된 계기는 다름아닌 엄마입니다. 엄마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한국말과 문화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과 일본의 교류문화에 공헌하는 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 내가 느낀 한국

新居 萌 (田園調布学園高等部)

“저, 정말 몰랐어요.”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의 일이었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한국에 갔을 때 이야기다.

K-POP 을 좋아하시는 우리 엄마 영향인지, 난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에게 “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자꾸 말해서 그런지 엄마가 나한테 한국여행을 선물해 주셨다. 내가 중학교 2학년이었고,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다. 그때 일어난 일은 나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고, 나에게 큰 변화를 준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잊을 수 없다.

난생처음으로 한국에 여행가게 된 나는 정말 설레고 있었다.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낯설지 않은 한국의 거리에 조금씩 익숙해졌을 때 난 지하철을 타게 됐다. 하루 종일 피곤하게 돌아다녀서 그런지 지쳐 있었던 난 아무 생각 없이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안에 들어가서 그냥 빈 자리에 앉았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어떤 아저씨가 들어왔는데, 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바뀌면서 호통을 쳤다.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지도 왜 그 아저씨가 나한테 야단을 치는지도 이해를 할 수 없었다. 난 그 아저씨의 무서운 서슬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나한테 호통을 친 적이 없어서 처음 일어난 일에 대해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가 나를 도와주셨다.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하나도 몰랐지만, 아주머니가 아저씨를 달래는 몸짓으로 그 아주머니가 나를 비호해 주시는 것이 분명했다. 아마 “그렇게까지 화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그때 당시의 난 그 자리를 그만 떠나 버렸다. 너무 무서웠고, 창피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말도 못하는 내가 너무 한심했다.

귀국한 후, 그 일 때문에 한국의 역사, 문화,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생활 풍습으로 깊이 정착해 있는 ‘유교’의 사상이다. 이 사상을 알게 된 나는 그때 호통을 듣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행중에 노약자석에 앉는 젊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웃어른들을 잘 모시는 한국의 젊은 사람들 모습에 난 정말 놀랐다. 물론 외국에서 온 일본사람인 나에게도 아주 친절하고 따뜻했다.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 있으면 꼭 누군가가 아무 말없이 짐을 들어줬다. 호텔에 가는 길에 계시는 포장마차 아저씨도 매일 나한테 상냥하게 말을 걸어줬다. 이런 따뜻하고 정이 깊은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일본인인 나에게는 정말 부러운 일이었다.

난 깊은 정이 있고 상냥하고 다정함이 넘치는 한국을 사랑한다. 몇 번 가도 또 가고 싶은 활기차고 매력적인 나라다. 난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 내가 대학생이 되면 꼭 유학가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많은 경험을 하고, 다 흡수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적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지금의 나에게는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멋진 여성이 되길 원한다.

## 웃기만 스쳐도 인연

増田 りか (横浜雙葉高等学校)

웃기만 스쳐도 인연. 이번 생에서 웃기만 스쳐도 그 사람과 전생에서 이어지는 인연이 있었다는 뜻. 이 유명한 속담을 알려 줬던 사람은 내 소중한 친구였다.

내가 일본에서 다닌 학교와 그 친구가 다닌 한국에 있는 학교는 서로 교환학생을 보내고 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두 명씩 방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 때 우리 방에 온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였다. 우연히 우리 방에 와서 만나서 친구가 되고, 그날부터 우리는 SNS로 연락을 하며 친해졌다. 그 후 내가 그 친구가 다닌 학교를 방문했다. 한류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한국 학교 생활은 일본과 차이가 크지 않아서 친근감을 많이 느꼈다. 그 때 그 시절, 그 사람들과 내가 경험 했던 모든 것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 되어 지금도 내 가슴속에서 따뜻한 빛을 내고 있다. 다른 나라에 태어나서 우연히 알게 된 우리. 성격도 좋아하는 것도 잘 맞는다. 마치 전생에서 이어지고 있는 인연 같고 너무 신기 하다. 이 인연을 감사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나만의 세계가 많이 넓혀지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 자신감이 생기고 성격도 밝아지고 지금의 나는 어떤 것이라도 도전하고 그걸 즐기고 있다. 아마 내 세계를 좁게 만들었던 건 자기 자신이었던 걸 실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다. 언젠가 한국에서 일을 한다는 꿈. 예전의 나라면 생각할 수도 없었던 꿈. 앞으로도 많은 도전을 하고 한국과 일본의 사이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가깝지만 먼 나라"인 한국과 일본 사이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아무리 국가간의 관계가 복잡해도 사람과 사람으로서 "가깝고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다. 어느 날에 친구가 내게 "덕분에 일본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을 때 정말 기뻐다."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라는 테레사 수녀의 명언이 있지만, 더 좋은 사이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는다면 이 두 나라의 미래에 기대 해도 되지 않을까. 언젠가 한국과 일본이 "가깝고 가까운 나라"가 되는 날을 기다리며.